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이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헌츠빌
파견대학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0개월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샘휴스턴 주립대는 휴스턴에서 약 1시간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학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위치는 순천향대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캠퍼스 규모는 엄청 크지는 않지만 평지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엔 순천향대보다는 큰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중에서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동양인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저희 교환학생 말고는 2명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2018-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Business Aanalysis – 처음 수업을 듣기전에 교수님한테서 전체 메일로 대학수학 수준의 수업이라고 들어서 수업 듣기 전에 걱정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전혀 어렵지 않은 수업이었다.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다. Electric communications tech – 워드, 엑셀, 피피티를 배우는 컴활 같은 온라인 코스.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100 정도 들었던 것 같다. Business Legal Environment – 미국 국내법 수업. 진짜로 실제 법정 케이스를 다루면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교수님이 랜덤으로 카드를 뽑아 그 카드에 적힌 학생을 골라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예습 복습이 중요했다.

	Composition – 미국식 교육으로 문법과 에세이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한 학기에 총 6개? 정도의 에세이를 쓴 것 같다. 새로운 방법으로 문법을 배워서 신선했다.
2019-1학기 수업	Intermediate Business Analysis – 전학기에 배웠던 business analysis 과목에서 좀더 실무적인 내용을 배운다. 수학뿐만 아니라 케이스를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지만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 Cengage 라는 프로그램을 \$100 정도로 구매해야 했다. Operation Management – 물류, 경영, 마케팅을 통틀어서 다 배우는 수업이었다. 3학년 수업이어서 팀프로젝트로 가상 공장을 경영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사야했다. United states history – 미국 국내 역사를 배우는 수업이었다. 대형 강의로 시험볼때 한장짜리 노트카드를 가져가서 보면서 써도 되는 수업이어서 점수 받기에 어렵지 않았다. World history- 온라인 코스로 \$30 상당의 책을 구매했어야 했다. 매주 에세이 과제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다. 테스트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서 어렵지 않았다.
프로그램 운영	<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가면 대부분의 일은 Dana가 책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거주 경험도 있어서 한국 학생들한테 친근하게 잘 해준다. 처음 하는 국제학생 오티에서 친구를 꽤 사귀게 되니 꼭 참석하시길. 근데 어이없었던 거가 내가 한국에서 3학년일 때 미국을 가서 3학년 전공을 들었어야 했는데 교환학생 수강신청 기간이 우리나라로 치면 수강 정정기간 (4차 수강신청) 에 해야해서 고학년 수업에는 자리가 없어서 시간표를 두세번이나 갈아 엮어야 했다. 오피스에 가서 따지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정해서 가기를 추천한다. Rate my professor 라는 사이트를 가면 해당 학과 교수님 수업에 대한 후기가 나오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근데 해당 후기가 신뢰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평점이 낮은 교수님 수업도 수강하였었는데 나는 괜찮았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헛스빌은 여름에는 매우 덥다. 온도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햇빛이 너무 뜨겁다. 그리고 실내는 너무 추워서 후드티를 입어도 될 정도였다. 긴팔 후드집업을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겨울은 한국보다는 짧고 따뜻한 편이다. 그래도 패딩 한 개쯤은 가져가는걸 추천한다.
안전	<i>현지 안전 상황</i> 밤에 학교내에 혼자서는 돌아다니지 않는걸 추천한다. 학교내 프로그램에 안심 귀가 서비스 같은 것도 있다. 우리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길 건너 아파트에서 안좋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단속은 철저히 하는걸 추천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외부 숙소 The Armory에서 살았다. 2018년 8월에 오픈해서 깨끗했지만 가격이 다른 곳보다는 비쌌다. 하지만 외부 숙소중에서는 가장 학교랑 가까워서 걸어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집에서 요리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 여러 식당들이 있다. 판다익스프레스, 서브웨이, chick fil a, 피자집, 햄버거집 등등.. 그리고 집앞에 jack in the box 도 있었다. 텍사스는 HEB라는 마트가 있는데 식료품이 싼 편이라 괜찮았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HEB까지는 가기 힘들다. 학교에서 월, 수 마다 월마트가는 셔틀이 있으니 차가 없는 사람들은 알아보는걸 추천한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다. 사실 도시가 캠퍼스 타운이라서 그런지 학교 말고는 갈 곳도 없다. 다운타운에 휴스턴까지 가는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있는데,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 까지도 우버를 타고 이동해야한다. 차 있는 친구를 사귀는걸 매우 추천한다. 시골이라 그런지 우버나 리프트도 잘 잡히지 않는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로 2번 약 200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약 200만원	국내보험 대체 불가능
숙소	한달에 70만원 + 전기세 10만원	
식비	한달에 10~20만원	
교통비		
책값	한 권당 렌트하면 2~3만원 했다	
기타1		
기타2		
합계	약 2000만원	여행비용 포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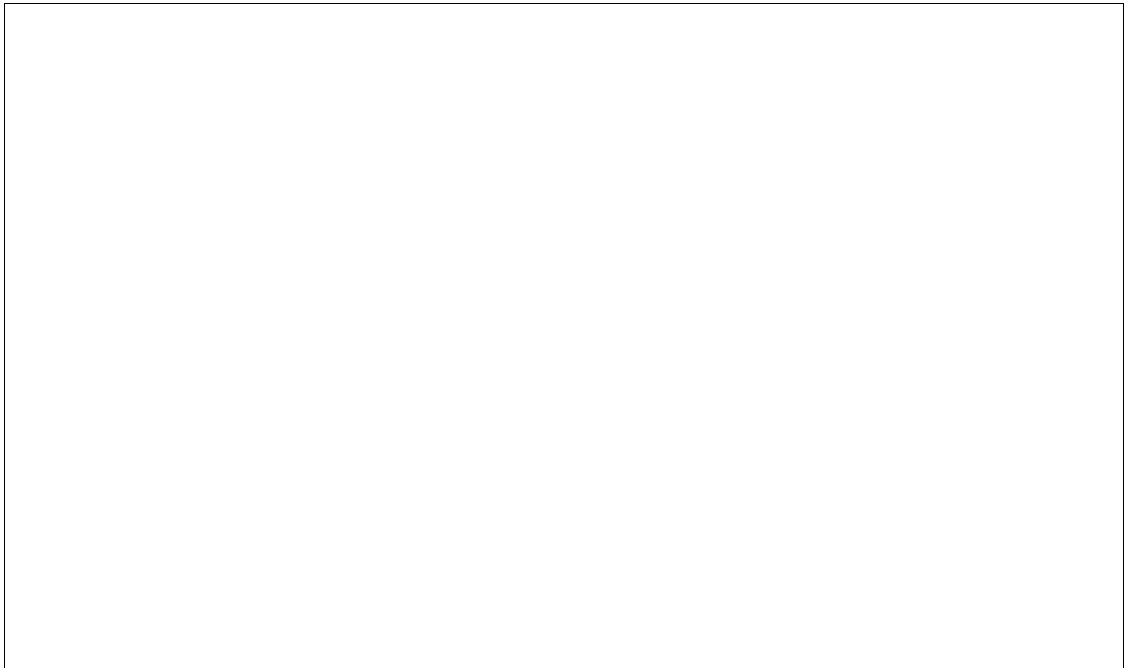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헛스빌은 생각한 것 보다 더 시골이다. 처음 학교에 갔을때는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건이 된다면 차를 사는걸 추천한다. 일반 미국 학생들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게 힘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리고 나는 현지 계좌를 만드는걸 추천한다. 초반에 카드가 오류가 나서 매우 불편했었는데,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을 이용하면 타 은행 수수료보다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 나는 체이스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관리했는데 제일 편했던 것 같다. 하지만 헛스빌에는 체이스 은행이 없고 차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Conroe 나 휴스턴에 가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책은 미리 새책을 사지 말고 오티때 책을 쓸건지 안쓸건지 교수님이 말해주기 때문에 쓴다고 하면 아마존에서 렌트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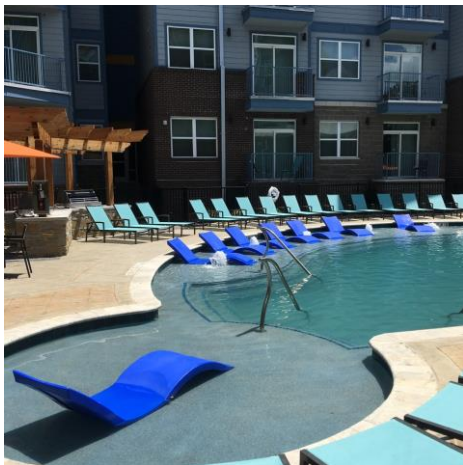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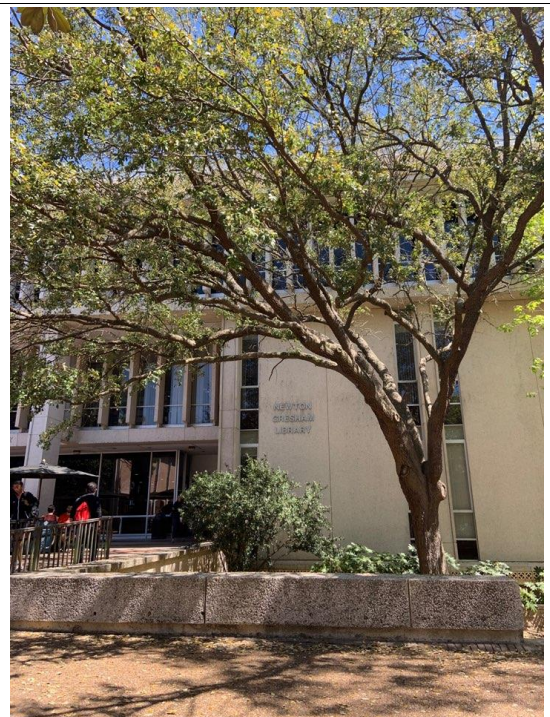
미국에서의 10개월은 짧지만 길게 느껴졌다. 2학기 마지막 되서는 한국에 빨리 가고싶은 마음으로 지냈지만, 막상 귀국하고 나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나는 미국에 가서 많은 활동은 하지 않았다. 4개 수업 중 하나는 온라인코스여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은 3개만 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유로움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처럼 바쁘게 말고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생활을 추천한다. 이번 미국에서의 10개월간 경험을 통해 미국 취업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he Armory 아파트 수영장



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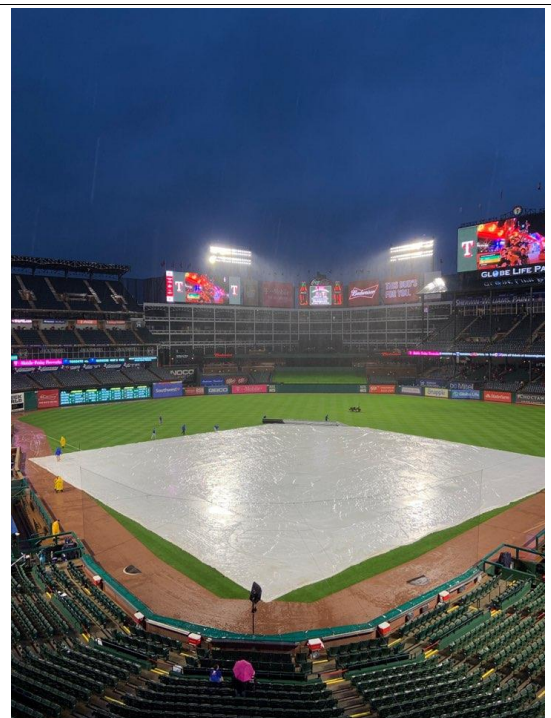
비즈니스 전공 Smith Hutson 건물



휴스턴에서 열린 학교 풋볼 경기



휴스턴 다운타운



달라스 텍사스 레인저스 구장